



실천한다는 양측의 이해가 일치하여 성사되었습니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양 기관은 협약일로부터 1년간, 강남구가 선정한 모범 및 유공납세자에게 종합건강검진 비용의 30%를 감면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혜택의 대상을 납세자 본인에 한정하지 않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여 가족 전체가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 병원이 공문서로 약속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행정 서비스’의 일환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선순환의 고리

2025년 강남구가 시도한 의료비 할인 혜택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실 납세라는 의무 이행이 존경과 혜택이라는 권리로 되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표창장이 명예를 드높였다면, 의료비 할인은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돌보았습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까운 지출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지역 사회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로 인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우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